

2015 / 06 / 25 (THU)

IT (소프트웨어/인터넷/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국내 IT 업종 Comment

전일 국내 IT섹터는 혼조세. 그리스 우려 완화, 추경 기대감 등으로 투심 호전됐으나 삼성전자의 2Q15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란 전망이 악재로 작용하며 혼조 마감. 인터넷주가 상대적으로 강세.

수급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로 다음카카오, 다우기술 강세. 반면 외인의 매도세로 코나아이 약세.

종목별로는, 키움증권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다우기술이 6.4% 상승 마감.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삼성전자	378 억	SK하이닉스	-321 억
LG디스플레이	108 억	삼성테크윈	-42 억
SK C&C	97 억	엔씨소프트	-34 억
다음카카오	69 억	일진디스플레이	-27 억
유니테스트	32 억	삼성에스디에	-22 억
NAVER	28 억	원익IPS	-20 억
삼성SDI	20 억	LG전자	-19 억
안랩	12 억	컴투스	-16 억
STS반도체	12 억	웹젠	-16 억
에스넷	10 억	파트론	-14 억
아모텍	10 억	대덕전자	-13 억
조이시티	9 억	코나아이	-12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다음카카오	150 억	삼성전자	-490 억
다우기술	69 억	SK C&C	-111 억
NAVER	42 억	LG디스플레이	-105 억
엔씨소프트	30 억	SK하이닉스	-102 억
유비쿼스	15 억	삼성테크윈	-57 억
블루콤	14 억	삼성SDI	-27 억
오디텍	12 억	삼성에스디에	-22 억
파트론	11 억	LS	-18 억
동진세미켐	11 억	LG전자	-17 억
리노공업	10 억	이오테크닉스	-11 억
OCT머리얼	9 억	KG이나시스	-11 억
인피니트헬스	8 억	아프리카TV	-10 억

반도체 / LCD 패널 가격

Product	close	1D	YTD
DXI (Index)	6845.82	-0.1%	-9.8%
DDR3 2Gb (Spot)	1.54 \$	0.0%	-30.3%
NAND 64Gb (Spot)	2.64 \$	0.0%	9.1%

Product	Price	2W	YTD
DDR3 4Gb (Contract)	2.75 \$	0.0%	-23.4%
NAND 64Gb (Contract)	2.61 \$	0.0%	-5.4%
LCD TV 32" Open Cell	83 \$	-3.5%	-11.7%
LCD TV 50" Open Cell	199 \$	-0.5%	-1.0%

국내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405.84	-0.4%	-5.8%	256 억	-644 억
KRX Semicon	1,935.89	-1.2%	3.2%	7 억	-593 억
(코) 반도체	1,015.15	0.4%	27.3%	16 억	33 억
(코) IT H/W	421.87	0.8%	21.0%	38 억	58 억
(코) IT S/W	2,270.83	1.8%	13.6%	48 억	154 억

하드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1,302,000	-1.4%	-1.9%	378 억	-490 억
LG전자	50,800	0.0%	-14.0%	-19 억	-17 억
삼성SDI	119,500	0.4%	3.0%	20 억	-27 억
삼성테크윈	31,150	-4.7%	30.6%	-42 억	-57 억
서울반도체	16,700	0.0%	-17.3%	-2 억	0 억
신도리코	66,600	0.5%	-1.8%	1 억	0 억

반도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SK하이닉스	43,350	-1.8%	-9.2%	-321 억	-102 억
이오테크닉스	93,900	-1.2%	-25.1%	-3 억	-11 억
원익IPS	15,150	-2.3%	8.6%	-20 억	-6 억
리노공업	50,000	0.0%	30.5%	-4 억	10 억
유진테크	17,800	0.6%	10.2%	1 억	0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58,500	-0.8%	-11.9%	-22 억	-22 억
SK C&C	269,000	-2.0%	26.0%	97 억	-111 억
포스코 ICT	5,260	2.1%	-0.8%	3 억	0 억
다우기술	20,900	6.4%	74.9%	2 억	69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649,000	1.4%	-8.8%	28 억	42 억
다음카카오	114,300	6.8%	-7.5%	69 억	150 억

디스플레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LG디스플레이	25,450	0.8%	-24.4%	108 억	-105 억
에스에프에이	48,100	-3.6%	-3.1%	-4 억	-8 억
솔브레인	49,300	-1.3%	53.3%	0 억	2 억
덕산하이메탈	8,090	0.7%	-27.4%	0 억	1 억

전자부품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기	53,900	0.9%	-1.5%	-6 억	0 억
LG이노텍	107,500	-2.7%	-4.4%	3 억	-3 억
파트론	8,640	0.0%	-26.5%	-14 억	11 억
루멘스	4,805	0.3%	-31.8%	-1 억	-1 억
일진디스플레이	9,420	-2.6%	38.1%	-27 억	7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99,000	-1.0%	9.3%	-34 억	30 억
컴투스	133,200	-1.3%	-0.4%	-16 억	1 억
NHN엔터테인먼트	58,000	-0.5%	-33.7%	-11 억	1 억
게임빌	91,300	0.1%	-24.4%	2 억	-1 억
위메이드	38,500	-0.9%	1.9%	-1 억	4 억
선데이토즈	17,350	1.5%	0.9%	2 억	6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골프존	131,500	-0.8%	420.8%	0 억	-5 억
한글과컴퓨터	18,100	2.3%	-10.4%	1 억	6 억
코나아이	31,600	-3.2%	-6.2%	-12 억	-7 억
슈프리카	22,850	1.8%	-10.2%	4 억	0 억

해외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3.69	-0.4%	4.6%
MSCI Internet	165.42	0.3%	8.3%
MSCI Software	169.32	-0.8%	3.5%
MSCI Semicon	221.61	-0.7%	0.7%
MSCI IT Services	125.07	-0.8%	6.2%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558.57	0.2%	5.3%
Facebook	88.86	7.7%	13.9%
Tencent	163.70	6.2%	45.5%
Baidu	210.32	-0.3%	-7.7%
Yahoo	40.94	1.1%	-18.9%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5.63	-1.0%	-1.8%
Oracle	41.20	-0.9%	-8.4%
SAP	73.51	1.2%	5.5%
EMC	27.45	1.4%	-7.7%
Symantec	24.23	0.7%	-5.6%

Handset	close	1D	YTD
Apple	128.11	0.9%	16.1%
Nokia	7.23	0.6%	-8.0%
Lenovo	11.32	0.0%	11.0%
ZTE	21.30	8.1%	26.5%
HTC	75.0	-6.6%	-47.2%

Semicon	close	1D	YTD
Intel	31.91	-0.5%	-12.1%
Qualcomm	65.35	-2.3%	-12.1%
Texas Instruments	53.99	-1.0%	1.0%
Micron	24.06	-1.8%	-31.3%
Toshiba	430	0.0%	-16.1%
Renesas	979	5.3%	19.0%
STMicro	8.24	-1.9%	10.3%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66.97	-1.0%	4.1%
HP	31.54	-0.8%	-21.4%
Accenture	97.77	0.8%	9.5%
Fujitsu	730	-1.1%	13.3%
NTT Data	5,410	3.0%	19.8%
CSC	66.69	-1.5%	5.8%

Hardware	close	1D	YTD
GE	27.26	0.1%	7.9%
Panasonic	1,778	-0.2%	24.6%
SONY	3,820	4.5%	54.5%
Whirlpool	182.72	-1.4%	-5.7%
Electrolux	268.30	-1.3%	17.3%
Haier	21.50	1.4%	16.5%

Components	close	1D	YTD
Murata	21,820	3.9%	64.7%
KYOCERA	6,701	1.5%	20.6%
Nidec	9,291	-0.6%	18.3%
TDK	10,220	-0.3%	42.7%
Ibiden	2,155	1.7%	20.5%

Display	close	1D	YTD
Sharp	162	-0.6%	-39.6%
Japan Display	505	-0.8%	36.5%
AUO	4.47	-4.3%	-12.2%
Innolux	15.60	-5.2%	1.3%

인터넷 Internet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다음카카오	6.8%	최근이슈

News & Issue

다음카카오, 채널검색 등 모멘텀 영향에 강세

다음카카오가 6%이상 급등. 낙폭이 컸던 상황에서 채널검색 등의 모멘텀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라인뮤직' 등의 이슈가 있고 다음카카오도 '채널검색' 및 인터넷전문은행 등 이슈가 존재. 두 종목 모두 모멘텀이 있지만 다음카카오는 최근 낙폭이 더 컸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됨.

한편 다음카카오는 최근 사업 구조조정예 박차를 가하고 있음. 23일 뉴스-패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추천해주고 카카오톡 친구들끼리 공유하는 '카카오토픽' 서비스를 8월 31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힘.

작년 9월 시험 버전으로 출시된 이 서비스는 사용자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데다 최근 포털 '다음'의 모바일 앱에 실시간 콘텐츠 추천 기능을 도입하면서 종료하게 됐다. 설명. 다음의 모바일 메신저 '마이피플', 온라인 파일 저장 서비스인 '다음 클라우드', 어린이용 서비스 '키즈팡', 음악 서비스 '다음 뮤직' 등도 연쇄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

IT서비스 IT Services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다우기술	6.4%	최근이슈

News & Issue

인터넷전문은행, 다음카카오 키움증권 격돌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1호는 어디가 될 것인지를 놓고 물밑 경쟁이 치열.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 이번 발표에는 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와 최저자본금 기준을 완화해 IT기업 등 혁신적 경영기업을 참여시킨다는 내용이 포함.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해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는 우선 연내에 1~2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내줄 계획. 정부의 발표 직후 국내 ICT 업체 및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1호 인터넷전문은행을 노리는 기업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 관련 업계에서는 현재 '다음카카오'와 '키움증권'을 인터넷전문은행 1호 타이틀에 가장 근접한 기업으로 보고 있음.

다음카카오는 정부의 발표가 있던 날, 곧바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힘. 이들은 이미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활용해 '뱅크월렛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등의 금융서비스를 정상궤도에 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연착륙하리라는 업계의 분석이 지배적. 다음카카오는 현재 LG CNS의 솔루션을 활용해 핀테크 결제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선보이고 있음.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다음카카오가 LG CNS와 협력체제를 강화해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

LG CNS는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는 물론 모바일과 인터넷뱅킹이 통합된 플랫폼을 개발. 또한 은행,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관련 솔루션과 간편결제, 소액대출, 클라우드펀딩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필요한 플랫폼을 총망라한 사업자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다음카카오가 LG CNS의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도 아낄 수 있음. LG CNS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둘 경우 플랫폼 기업으로서 입지가 더욱 탄탄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나쁠 것이 없다는 판단.

한편,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놓고 자의 반, 타의 반 가장 유력한 금융사로 떠오른 기업. 그 이유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라인 주식 거래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HTS 주식위탁매매 점유율 1위를 10년째 유지하고 있는 증권사이기 때문. 따라서 금융전문가들은 키움증권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경우 기존 고객만 유지하더라도 업계에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또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해온 금융위원회 역시 기존 은행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금융시장에서 동종의 서비스를 가진 증권사에서 시범 사업자가 나올 것이라 예상.

또 하나 키움증권이 유력시 되는 이유는 키움증권의 대주주가 ICT기업 '다우기술'이기 때문. 키움증권은 다우기술과 연합한 컨소시엄을 활용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들의 행보는 지난해 말 키움증권이 다우기술과 260억 규모의 IT 아웃소싱 서비스 계약을 맺으면서 수면위로 떠오름. 금융당국이 23년 만에 예금·대출·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신규로 인가한다는 소식에 오랜만에 금융권에 활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첫 사업자는 올 연말 무렵 결정될 예정.

News & Issue

다우 김익래 회장 부인 다우기술 지분 모두 처분

키움증권을 계열사로 둔 다우그룹 김익래 회장의 부인인 이경애씨가 다우기술 주식을 모두 매도함. 다우기술은 23일 이경애씨가 지난 19일과 22일에 걸쳐 다우기술 40만주를 장내 처분했다고 공시. 이제 이 씨의 주식은 단 한 주도 남지 않게 됨.

이 씨는 지난 2000년 중반 이후부터 다우기술의 주식 641,000주를 보유해 오다가 2011년 11월 이중 241,000주를 장내 매각. 당시 주당 처분가는 평균 10,700원 수준으로 매각가격은 25.7억원 수준.

이번에 이 씨가 주식 40만주를 모두 매각한 시점의 다우기술 주가는 최근 단기 급등으로 18만원을 넘어섰을 시기. 매매 당일 증가로 환산할 경우 처분금액은 72.9억원. 두번에 걸친 매도로 약 98.6억 원을 현금화 함. 이번 이 씨의 지분 매각으로 다우기술에 대한 김익래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0.50%에서 39.61%로 감소.

반도체 Semicon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SK하이닉	-1.8%	최근이슈

News & Issue

SK하이닉스, PC시장 회복이 지연전망에 약세

SK하이닉스의 올해와 내년 순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도 약세. 2분기 영업이익은 1.48조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PC시장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2015년과 2016년 EPS는 각각 2.5%, 5.6% 하향 조정.

올해 D램 ASP 수준은 전년 대비 17%로 하향 조정. D램 수익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7%, 9% 상승한 13.96조원과 5.66조원을 기록할 전망. 올해 3분기말 D램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대형 게임 출시 잇따라, 모바일시장 성장세 지속? 정체?

국내 모바일게임 올 여름 대형 모바일게임의 출시가 몰려 있어 국내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지 정체가 관측될지가 주목. 일단 시장조사 결과는 전망이 밝지 못함. 오는 2016년에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이 역성장할 것이라 관측이 제기됨.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4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3년 모바일게임 시장 매출액은 2.33조원으로 전년 대비 190.6% 성장했지만 올해부터 한 자릿수 성장률에 그칠 전망. 올해 2.5조원 규모를 넘지 못하다 2016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역성장 예상.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올 여름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이용자를 뺏고 뺏기는제로섬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 한 이용자 당 3~4종이 넘는 다수의 게임을 즐기려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

지난 17일 올 여름 업계 첫 대형 게임으로 '크로노블레이드'가 출시. 이 게임은 넷마블게임즈와 네이버가 마케팅 제휴에 나서 성공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음. 크로노블레이드는 현재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8위로 준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크로노블레이드는 넷마블과 네이버의 첫 마케팅 제휴작인 '레이븐'의 초반 반응엔 못 미치는 성과를 기록 중. 레이븐은 폭발적인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출시 5일만에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1위에 오른 바 있음. 향후 시장 성장의 관건은 기존 인기작인 레이븐, 유 오리진 등과 함께 크로노블레이드가 앞으로 매출 10위 내 성적을 유지할지 그리고 후속 대형 게임들도 매출 상위권에 진입할지에 달려있음. 우선 넷마블이 지난 23일 출시한 '시티앤파이터'와 곧 선보일 '리벤저스' 모두 상당한 무게감을 가진 게임들. 두 게임이 크로노블레이드와 매출 순위를 겨룰지가 관심사. 7월엔 초대형 모바일게임 '이데아' 출시도 예정돼 있음. 이데아의 경우 개발비만 100억 가량이 투입된 기대작으로 PC 온라인게임의 방대한 재미 요소가 적용된 것이 특징.

넥슨에서도 올 여름 모바일 야심작 출시를 계획 중. 23일 출시한 '용사X용사'에 이어 '천룡팔부', '광개토태왕' 등이 출시 대기 중. 이 중 광개토태왕은 모바일게임 시장에 흔치 않은 실시간전략 장르. 새로운 이용자층을 확보할지가 주목. 컴투스도 서머너즈워의 인기를 이을 자체 개발작으로 '월드택틱스' 출시를 예고. 이 게임은 컴투스의 하반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주도할 핵심 타이틀. 헬로히어로로 유명한 핀콘에서도 이르면 7월말 대형 모바일게임 '엔젤스톤' 출시를 예정하는 등 올 여름 업계들이 저마다의 야심작 출시를 계획 중.

인터넷 Internet

Region	종목	1D	Category
해외	Facebook	7.7%	최근이슈

News & Issue

페이스북, 아톰 기반 IDE 오픈소스로 공개

페이스북이 아톰 에디터 기반 통합개발환경(IDE) '누클라이드(Nuclide)'를 오픈소스로 풀었음. 페이스북은 23일(현지시간) 공식블로그를 통해 3개월 전 개발자 컨퍼런스 'F8'에서 소개한 누클라이드를 소개하고 오픈소스화한다고 밝힘. 페이스북은 자사 실무용으로 출발해 오픈소스화한 핵, HHVM, 리액트같은 요소들의 중요성이 커졌고, 최근 선보인 누클라이드를 공유한다면 그 프로젝트 커뮤니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힘. 최근 몇달간 누클라이드의 오픈소스화를 준비했고 해당 소스코드를 이제 깃허브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덧붙임.

누클라이드는 IDE 패키지. 앞서 페이스북이 선보인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리액트(React) 및 리액트네이티브(React Native)나 프로그래밍 언어 '핵(Hack)' 등을 다룰 수 있도록 돕는 도구. 깃허브(GitHub)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코드에디터 '아톰(Atom)' 최신버전을 그대로 포함한 형태로 제공. 페이스북은 누클라이드 최초 소스코드 공개를 위해 자사 엔지니어를 위해 개발한 기술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일부 포함했다고 밝힘. 여기엔 SSH를 통해 원격파일편집 및 문법과 타입 검증을 지원하는 원격개발 패키지, 핵 언어를 위한 타입체킹과 문법 하이라이트 및 자동완성과 심볼 기능 연결 등 공식 지원,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정적 타입 체커 '플로(Flow)' 지원, 페이스북의 소스 관리 플랫폼 '머큐리얼(Mercurial)'의 파일트리 하이라이트, 북마크 라벨 등 지원, 대규모의 다중 언어 코드베이스 환경에서 파일과 심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통합검색(Omni-search) 등이 포함.

페이스북은 이번 누클라이드 첫 소스코드 공개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 최초 포함된 패키지 구성요소 자체를 개선시킬 계획이며 커뮤니티와 협업해 외부의 요청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예고. iOS, 리액트, 리액트네이티브 사용 사례를 향후 패키지 로드맵에 지원하는 방안과 서버 및 모바일에서 디버깅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언급. '벅(Buck)'과 '인퍼(Infer)'같은 지저 프로젝트 관련 기능을 확대하고 '릴레이(Relay)'와 '그래프QL(GraphQL)'같은 패턴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 페이스북은 이렇게 누클라이드에 향후 지원이나 관련기능 확대를 예고한 기술 모두가 페이스북의 현업 인프라에 쓰이는 것들이며 이들이 자연스럽게 통합돼 갈 것이라고 설명. 자사 엔지니어들이 원하는 코드 작성 및 디버깅 과정이 자체 도구에서 지원하는 스택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에서 나아가 회사 밖의 모바일, 웹, 백엔드 개발자들이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돕길 바란다고 덧붙임.

알리바바, 中 O2O 시장 진출, 'BAT 新삼국지' 구도 정립

중국의 '온라인 시장 삼국지'를 벌여온 알리바바,騰訊(텐센트), 바이두(百度) 등 '인터넷 기업 3인방'이 경쟁무대를 오프라인으로 옮겨 'O2O'(Online to Offline) 접전에 나섬. FT는 23일(현지시간) 알리바바가 자회사와 손잡고 약 60억 위안(약 1.07조원)을 출자해 O2O시장에 진출, 라이벌 텐센트와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게 됐다고 보도.

알리바바는 온라인 금융 부문 자회사 마이(마<蟲변+馬>蟻)금융그룹(엔트파이낸셜)과 30억 위안씩을 투자해 합작사 코우베이(口碑)를 설립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O2O 사업에 나설 예정. 이에 따라 O2O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이른바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간 경쟁이 날로 뜨거워질 전망이다.

기업가치가 45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는 엔트파이낸셜은 2011년 별도법인으로 독립했으나 여전히 마윈(馬雲) 회장이 지배 주주. 알리바바의 O2O 시장 진출은 음식 판매상들을 온라인 쇼핑몰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 중국의 식당 소개 사이트인 디엔핑(点评)에 따르면 중국의 음식 배달 시장은 텐센트가 석권하고 있음.

O2O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상품 검색과 주문, 결제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상품을 받거나 이용하는 형태로 '중국판 우버'인 디디콰이디(<摘에서 手대신口>的快的)나 식품 배송 서비스 등이 대표적 사례. FT는 알리바바가 쇼핑몰인 타오바오(淘寶網)와 텐마오(天貓·T몰) 등 온라인 판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절박감에서 O2O 사업에 진출한 것으로 해석.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식당 예약에서 쇼핑, 승차권 구매 등 다양한 일을 처리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시장이 있어야 성장도 빠르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

베이징 소재 청강(長江)상학원의 쟁 천 교수는 미국 유통회사 월마트를 예로 들어 온라인 시장의 성장률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시장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지적. 이와 관련, 미국 WSJ은 지난 2014년 말 미국 온라인 쇼핑몰인 '11메인'(11Main).com을 인수했던 마 회장이 1년 만에 쇼핑몰을 오픈스카이에 매각한다고 보도.

알리바바도 이날 성명을 통해 매각 사실을 전하고, 대신 오픈 스카이의 주식 37.6%를 매수할 방침이라고 밝힘. 이 신문은 "알리바바, 미국시장에서 발 헛디뎠다" 제목의 기사에서 11메인 매각이 중국 내 O2O 사업 진출과 관련돼 있으며, 마 회장이 향후 외국으로의 사업확장보다 본거지 중국 사업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논평. 한편 중국의 인터넷 매체 하오터(好特)망은 24일 "11메인을 시장에 내놓는 것은 마윈이 미국에서 사들인 것들을 모조리 팔아버리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논평.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25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6월 25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6월 25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